

2024년 12월 04일

KIWOOM 이슈 분석 & 데일리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계엄령 사태 이후 주식시장 대응은?

SUMMARY

- ✓ 3일 밤 발생했던 계엄령 사태는 4일 새벽 4시 30분을 기점으로 종료
- ✓ 계엄령 선포 기간 중 급변했던 달러/원 환율, MSCI 한국 ETF 등 한국 관련 자산군들의 가격은 다소 안정
- ✓ 국내 고유의 정치 불확실성 자체가 높아졌다는 점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장 개시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
- ✓ 그러나 당국에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을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변화에 반응하기 보다는 관망으로 대응하며 금융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것을 지켜볼 필요

전일(3일) 미국 증시는 연이은 신고가 경신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출회, JOLTS 보고서 상 구인건수 증가(774.4만건, 컨센 732.7만건) 등에 따른 10년물 금리 반등에도 AI 시장 성장 기대감 등으로 혼조세로 마감했다(다우 -0.2%, S&P500 +0.1%, 나스닥 +0.4%).

사실 국내 증시 참여자들은 지금 미국 쪽에 이슈보다는 국내 정치 리스크가 가장 신경 쓰일 것이다. 주식, 환율 등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주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3일 밤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선포한 사태가 발생 했었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이었다. 실제로 비상 계엄 선포 직후 달러/원 환율은 순식간에 1,444원대까지 폭등했었으며, 미국에서 거래되는 MSCI 한국 지수 ETF(티커 EWW)도 한 때 6% 넘게 폭락하기도 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등 대부분 코인들이 김치프리미엄이 마이너스 20%대를 기록 함에 따라 동반 폭락세가 나타나기도 했던 상황이다.

다행히 국회에서 새벽 1시 경 190석 의석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으며, 새벽 4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을 의결함에 따라, 약 6시간 만에 계엄 사태가 종료됐다. 이후 현재(오전 7시 기준), 달러/원 환율은 1,410원대 후반으로 내려 왔으며, EWW도 1.6% 하락 마감에 그치는 등 한국 관련 자산가격들의 불안정함이 진정되고 있는 모습이다.

또 국가의 부도 위험을 측정하는데 활용하는 한국의 5년물 CDS 프리미엄도 유사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 전일 오후까지 33pt대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계엄령 발표 이후 한 때 36pt대까지 상승했지만, 현재 34pt대로 내려간 상태이다(업비트에서 비트코인도 전일 밤 30% 넘게 폭락했다가, 보험 수준으로 가격이 빠르게 원상 복구).

투자자들 입장로서는 블랙스완급의 최악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1980년 1월 1일 코스피 지수가 계산되기 시작한 이래로 비상 계엄령이 발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주식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 게 불가능한 일일 수 있었다(한국에서 비상 계엄령은 1979년 10월 26일 이후 45년동안 없었음).

6시간 만에 계엄 사태가 종료되기는 했지만, EWW, 달러/원 환율 등 금융시장의 가격 레벨이 전일 장 마감 당시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점 자체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한국 고유의 정치 불확실성이 증폭된 상태이므로 향후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소지가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전일 외국인인 코스피 순매수 금액(5,650억원)은 8월 16일(1조 2,000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는 등 공격적인 순매도세가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후퇴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하지만 1) 금일 새벽 기획 재정부에서 긴급 거시경제 및 금융현안 간담회를 통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 해 금융 시장은 안정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2) 한국은행도 금일 오전 중 임시 금통위를 개최하여 시장 안정화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 시 국내 증시 개장 이후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은 불가피할 수 있겠지만, 기재부, 한은 등 당국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가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만큼 그 변동성 증폭의 지속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시점에서는 개장 직후 나타날 수 있는 투매 급의 움직임에 반응하여 포지션 교체를 하기 보다는, 달러/원 환율 변화를 지켜보면서 관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달러/원 환율의 실시간 차트(왼쪽)과 미국에 상장된 MSCI 한국지수 ETF(티커: EWY)의 가격 변화(오른쪽)



자료: Fedwatch,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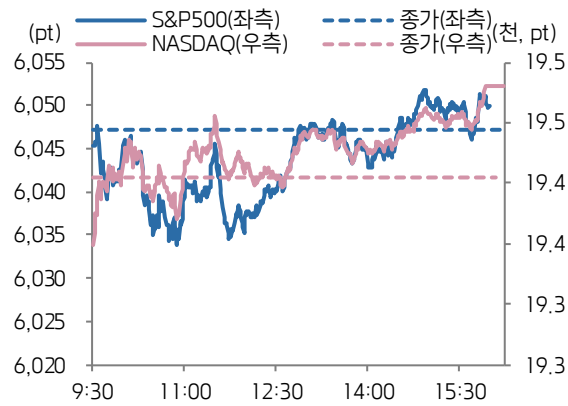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의 5년물 CDS 프리미엄 일중 차트, 계엄령 선포 직후 36pt까지 올라갔지만 현재는 33pt대로 안정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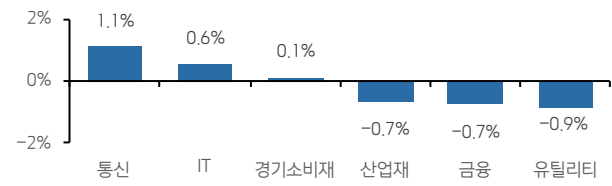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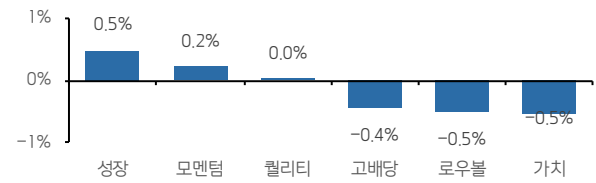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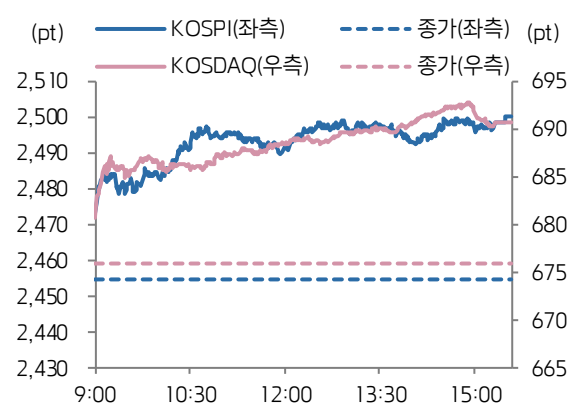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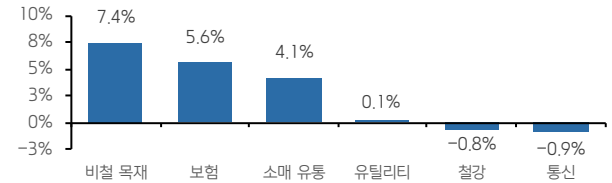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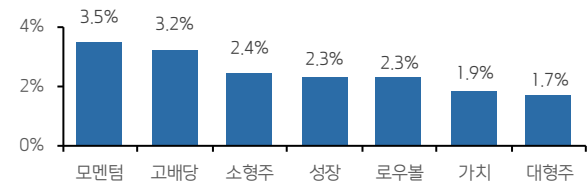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42.65	+1.28%	+26.65%	GM	53.66	-2.51%	+50.6%
마이크로소프트	431.20	+0.05%	+15.53%	일라이릴리	813.33	+1.69%	+40.44%
알파벳	171.34	-0.09%	+22.96%	월마트	93.51	+0.94%	+79.68%
메타	613.65	+3.51%	+73.89%	JP모건	244.82	-0.58%	+47.36%
아마존	213.44	+1.3%	+40.48%	엑손모빌	117.67	-0.15%	+21.71%
테슬라	351.42	-1.59%	+41.43%	셰브론	161.92	-0.18%	+13.23%
엔비디아	140.26	+1.18%	+183.29%	제너럴일렉트릭	93.51	+0.9%	+79.7%
브로드컴	168.15	+0.98%	+52.26%	캐터필러	399.26	-0.81%	+37.2%
AMD	141.98	-0.06%	-3.68%	보잉	155.00	-0.98%	-40.54%
마이크론	99.84	+1.31%	+17.34%	넥스트에라	76.29	-1%	+29.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500.10	+1.86%	-5.84%	USD/KRW	1,425.00	+1.66%	+10.64%
코스피200	331.44	+1.87%	-7.42%	달러 지수	106.32	-0.11%	+4.93%
코스닥	690.80	+2.21%	-20.28%	EUR/USD	1.05	+0.11%	-4.79%
코스닥150	1,170.02	+2.8%	-16.03%	USD/CNH	7.30	+0.19%	+2.45%
S&P500	6,049.88	+0.05%	+26.84%	USD/JPY	149.58	-0.01%	+6.06%
NASDAQ	19,480.91	+0.4%	+29.77%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4,705.53	-0.17%	+18.62%	국고채 3년	2.585	+2bp	-56bp
VIX	13.30	-0.3%	+6.83%	국고채 10년	2.712	+1.2bp	-46.3bp
러셀2000	2,416.35	-0.73%	+19.2%	미국 국채 2년	4.177	-0.2bp	-7.3bp
필라. 반도체	5,035.86	-0.38%	+20.61%	미국 국채 10년	4.225	+3.5bp	+34.5bp
다우 운송	17,189.55	-2.03%	+8.12%	미국 국채 30년	4.404	+4.2bp	+37.5bp
상해종합	3,378.81	+0.44%	+13.58%	독일 국채 10년	2.054	+2bp	+3bp
항생 H	7,072.13	+0.9%	+22.6%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80,845.75	+0.74%	+11.91%	WTI	69.94	+2.7%	+0%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73.62	+2.49%	-4.44%
Eurostoxx50	4,878.51	+0.66%	+7.9%	금	2,667.90	+0.35%	+22.65%
MSCI 전세계 지수	864.64	+0.25%	+18.93%	은	31.08	+2.06%	+29.03%
MSCI DM 지수	3,817.72	+0.2%	+20.46%	구리	414.60	+1.73%	+6.57%
MSCI EM 지수	1,086.39	+0.73%	+6.12%	BDI	1,298.00	-4.14%	-38.01%
MSCI 한국 ETF	55.81	-1.59%	-14.83%	옥수수	432.25	-0.06%	-15.95%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48.25	+0.18%	-19.29%
비트코인	96,139.56	+0.75%	+126.17%	대두	991.50	+0.63%	-20.85%
이더리움	3,619.31	+0.06%	+58.58%	커피	295.50	-0.19%	+55.53%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2월 3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